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학생 '자봉' 이대로 좋은가?

김종광
소설가

자원봉사의 줄임말로 '자봉'이 널리 회자된다. 자원봉사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나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가 없이' '자발적', 이거 되게 힘든 일이다. 어쩌면 '자봉'은 단순한 줄임말이 아니라, 대가 없다지만 실상은 있고, 자발적이라지만 본질적으로는 강제적인 봉사 행위들을 뜻하는 신조어일지도 모른다.

사실 '대가 없는' 것도 문제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덕목은 일한 만큼 받는 것이다. 모든 부당한 노동 문제는 노동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았거나 얻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져야 마땅한 사회에서 대가를 받지 않는 노동의 범람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다. 일자리가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작금에 '자봉'으로 충당되는 일들에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면, 더는 자원봉사일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는 늘어나고 소비경제는 개선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학생들의 자봉은 확실하고 분명한 대가를 받는다. 봉사 시간 혹은 봉사 점수. 게다가 학생들의 '자봉'은 자발성을 매우 의심받는다. 대학 입학과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취직 시험에 자봉을 필수 조건으로 만든 자들의 취지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자봉은 그저 더욱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무원이나 대기업 회사원이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스펙일 뿐이다.

마침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만 13~18세의 청소년은 학생이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회'를 이룩했다. (물론 여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부 대신 노동을 하는 청소년도 상당하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학생을 누가 '자봉'이란 이름으로 무료 노동의 세계로 내몰았는가? 그들이 '자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숭고한 가치, 정말 그런 것을 학생이 얻고 있다고 보는가? 설령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걸 학교에서 배워야지, 무료 노동판에서 얻으라는 건가? 공부는 학원 가서 하듯이 인격 도야는 사회에 가서 하라는 건가? 도대체 학교는 왜 있는 건가?

자봉에도 소위 등급이 있는 모양이다. 알짜(지속성이 있고 시험관에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자봉은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결국 스펙 넘치는 부모를 가진 학생에게 주어진다. 시험관이 별로 쳐주지 않지만 시간은 채울 수 있는, 배경 없는 평범한 중·고등학생이(학생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나마 쉬이 구할 수 있는 '시간' 자봉은 대개 행사 보조다. 국가보조금을 받는 무수한 단체들이 각종 행사를 꾸준히 벌이기 때문이다. 대개 선착순이기 때문에 행사 정보를 빨리 얻고 빨리 신청하면 된다. 국민 혈세 받아서 그 행사 치르는 단체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민(청소년)을 무보수로 부려 먹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자봉은 몰라도, 중·고등학생의 자봉만은 재고가 필요하다. 학생이 자봉을 통해 함양할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크다. 학생(부모)의 등급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해 치열한 경쟁과 학생 간의 위화감을 조장할 뿐이다. 자봉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청소년은 왜 꼭 편의점, 피시방, 주유소, 식당 같은 데서만 일해야 한단 말인가? 일을 해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한 청소년에게 현재 '자봉'으로 충당되는 일자리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은 공부(자아 계발 및 품성과 인격을 넓히기 위한 활동 포함)하고 독서해야 하는 이들이다. 공부 안 하는 시간은 놀아야 한다. 학생이 노는 게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운가?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자원봉사가 아닌 자봉이 진정 사라지려면, 대학입시 필수 조건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자봉 때문에 얻는 게 있는 자들은 자봉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애쓸 테니 쉽지 않을 터이다. 조금씩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어른들끼리 대가를 주고받으며 일하자. 학생 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자.

종교칼럼

일상의 오월 광주를 생각하며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오월은 많은 법정 기념일이 있다.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부처님 오신 날(12일), 스승의 날(15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18일), 성년의 날(20일), 부부의 날(21일), 물의 날(31일) 등 무려 아홉 개나 된다. 1년 열두 달 중에서 제일 바쁜 달일 것이다.

그러나 빛고을 광주는 해마다 맞는 5월이지만 이 모든 기념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바로 5·18 민중 항쟁 때문이다. 39년이 흐른 지금 다른 도시민들처럼 어린이날을 즐기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보수단체들의 계속되는 5·18의 은폐와 왜곡 망언으로 오월 광주는 5·18 민중 항쟁의 연장선이다. 따라서 일상의 오월 광주를 용납하지 않는다.

올해도 영원한 사랑의 꽃인 이팝꽃이 늘어진 5·18 묘역을 찾아 위령제를 지냈다. 우리 농성교당과 인연 있는 임균수 존영(尊靈: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여 부르는 말)과 최복덕 존영의 묘소를 찾아 참배를 했다. 임 존영은 원광대 한의대 본과 2학년 재학 중에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고 최 존영은 계엄군의 무차별 총기 난사로 집에서 얼굴 좌우에 관통상을 입어 열반에 들었다.

1980년 그해도 부처님 오신 날은 5월이었다. 임균수 존영이 세상을 떠난 지도 39년이 지났지만 그의 부모님은 아직도 부처님 오신 날은 교당을 오지 못한다. 그가 계엄군에게 죽임을 당한 그날도 거리에는 많은 연등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의 아픔 때문에 지금도 연등을 보면 균수가 생각나 가슴이 아프고 두근거려서 연등이 있는 교당과 사찰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최복덕 존영의 아드님은 올해도 초파일을 맞이해서 교당에 어머님을 위한 연등을 밝혔다. 세월이 흘러 아드님의 건강도 많이 안 좋아 보였다. 앞으로 몇 년이나 어머님을 위한 등을 켤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고 힘없이 말을 내뱉는다.

부처님께서는 전생 인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7천 겁의 인연은 부부가 되고 8천 겁은 부모와 자식이 되고 1만 겁의 인연은 스승과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누가 이 천륜을 끊는 패륜을 저지르고도 역사와 진실 앞에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과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과응보가 있기는 한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홍헌호 시인은 '오독'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어느 시에서 나는/ '화염 속의 내 고향 광주'를/ '화엄 속의 내 고향 광주'로 잘못 읽었는데/ 그렇게 읽길 잘했어/ 화엄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옆에서 죽는 놈 짠하고 불쌍해서/ 내 목숨 들이붓고 피 뿜는 짓이 있다면/ 그것이 화엄 아니겠냐?/ 그것이 불타는 엄숙함 아니것냐?"

시처럼 화엄 속의 광주는 그동안 이 땅 상극의 세상을 모두 다 불태웠으리라. 아직 타다 남은 재가 남아 있지만 5월의 바람에 날리리니 화엄의 꽃은 분명 피어나리라 본다.

화엄이 꽃이 활짝 필 때 임균수 존영을 비롯한 광주의 영령들은 상생의 바람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그러면 균수의 부모님도 부처님 오신 날 보살 되어 합장 공경하리라.

그때가 되면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아이들과 손잡고 어린이날을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오월 광주가 될 것이다.

거리에 나부끼는 어느 플래카드가 내 마음을 흔든다. "5월에서 평화로!"

기 고

세계수영대회의 성공 동력, 시민 서포터즈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고 온 누리를 밝힌다. 이처럼 시민 개개인은 약하지만 서로 연대하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다.

우리의 역사를 뒤 돌아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응집된 시민의 힘과 저력은 사회에 변화의 물줄기를 이끌어 냈고 생기를 불어넣어 왔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은 4강 진출이라는 실력뿐만 아니라 축구팀 서포터즈이자 열두 번째 선수인 '붉은 악마'들의 응원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특히 스포츠는 만국 공통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불리는데, 가장 큰 매력은 사회 분위기를 이끌고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

더욱이 스포츠 이벤트를 매개로 한 시민들의 결속력과 성숙한 시민 의식은 지역 공동체의 자긍심이자 힘찬 도약의 상징이다.

아일랜드는 축구 대회에서 800년간 자신들을 지배해온 영국을 물리쳐 오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인에게 자신감 회복과 국민의 재결집을 가져다 준 사람들도 다름 아닌 스포츠 영웅들이었다.

동·하계 올림픽, FIFA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과 같은 5대 메가 스포츠는 어떠한 사회적 사건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대형 이슈다. 또한 도시 경쟁력을 가늠하는 한 축이 되고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곤 한다.

광주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당당히 '광주'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로 유발되는 경제 효과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이번 수영대회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는 남다르다. 대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대회 전담팀 구성은 물론 경기 시설물들이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대회 시스템과 하드웨어의 완벽한 준비 못지않게 더 중요한 역할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졌다. 선수와 관광객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만나는 시민들의 따뜻한 친절, 열정적인 응원, 아름다운 헌신이 국제 대회의 성공을 이끌 것이다.

광주시에서는 수영대회 붐 조성, 각국 선수단의 환영·환송, 관광 안내 지원, 경기 응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회에 참가할 200여 개국 선수와 임원 1만 5000여 명의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할 1만 명의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시와 자치구는 이달 중순까지 이들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수영대회 개요, 참가 국가 현황, 국제 에티켓, 응원 방법 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시 조치 요령 등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동·단체·기관별로 40~80명 단위로 서포터즈 팀 200여 개를 구성해 참가 국가별로 배정하고 광주대, 송원대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10개 팀 500명의 대표 응원단을 구성해 일반 서포터즈의 경기 응원 분위기 조성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참가 선수단의 관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와 관광협회 등 100여 명으로 관광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남도 맛 기행 광역 투어 버스, 광주 시티 투어 버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광주의 맛과 멋을 보여준다.

지난 21일 '광주 시민의 날'엔 참가 국기를 앞세운 기수단과 서포터즈가 모두 모여 5·18 문화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대회 기간 최일선의 홍보 대사로서 친철하고 따뜻한 남도인의 정과 민주 인권 평화 도시 광주를 홍보한다.

시민 한 사람의 참여는 미미하지만 시민 서포터즈가 일으키는 사회적 반향은 광주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빈틈없이 채워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민 서포터즈의 환한 미소는 광주의 밝은 이미지를 대신하고 정성을 다해 베푼 친절은 광주의 가치를 높여 주며, 시민들의 자긍심은 광주의 발전상을 대변할 것이다. 시민 모두가 세계수영대회를 기다리는 이유이다.

社說

확인사살까지 한 계엄군 저들은 괴물이었다

계엄군이 5·18 당시 옛 전남 도청 진압작전 과정에서 시민군을 잔혹하게 '확인사살'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광주일보에 연재하고 있는 '5월의 진실을 찾아서'(23일자 10면)에서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 당시 숨진 시민군 중 4명은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 부위에 재차 총격을 당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사태 변사 검시 보고서 요지'를 분석한 것인데, 이 보고서는 광주지검 검사가 경찰·의사·군의관·군검찰관들과 함께 진행한 검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청 진압작전 때 숨진 시민군 15명 중 대학생 4명은 각기 3발의 M-16 총상을 입고 숨졌다. 특히 문 모 씨(당시 26세)는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 및 오른쪽 팔에, 서 모 군(19)은 오른쪽 가슴·왼쪽 다리·오른쪽 다리에, 박 모 씨(20)는 오른쪽 가슴·오른쪽 허벅지·오른쪽 무릎에, 이 모 씨(20)는 왼쪽 가슴·왼쪽 다리·오른쪽 머리 등에 각각 3발씩 총상을 입었다.

김 교수는 이들의 총상 부위가 세 곳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부상당한 상태에서 가슴 부위에 재차 총격을 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연의 일치로 이들이 유사한 부위에 총을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계엄군이 확인사살까지 저질렀다니 치가 떨린다. 도대체 계엄군이 자행한 잔혹한 살육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시민 15명이 숨진 옛 전남 도청 진압작전의 전모도 밝혀내야 한다. 향후 출범할 5·18 진상규명조사위에서는 계엄군이 자행한 만행을 끝까지 추적하고 희생자들이 숨진 과정을 규명하는 등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죽음으로 5월의 진실을 증언하는 희생자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금 먹는 하마'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내버스 회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극적 타결을 이룬 이후 준공영제 보완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영은 버스 회사가 맡지만 노선 조정 등 관리는 자치단체가 맡는 구조다.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경우엔 자치단체가 예산에서 지원한다. 문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적자다 보니 혈세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만 하더라도 2006년 도입 이후 첫 해에 196억 원이던 지원금이 지난해에는 639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16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승객 감소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버스회사 인건비 등 운영비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버스 회사 주주들은 배당금을 챙기고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챙기는 방만 경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의 한 버스 회사는 혈세를 지원받아 당기 순이익을 낸후 4억 원을 배당금으로 챙기기도 했다. 심지어 광주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지난 15일 총파업을 결의하자 6.4%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달랬다. 이번 시내버스 총파업 결의 및 철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들은 세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운송 원가를 산정할 때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의 완전공영제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안군은 운영과 관리를 모두 군에서 맡는 완전공영제 시행이후 운송원가를 대폭 줄임으로써 지출은 줄이고 요금은 타 지역보다 훨씬 싸게 유지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無等鼓

포스트맨

'우체부 조셉 룰랭'이라는 고흐의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1889년 고흐가 프랑스 아를에 머물 때 그린 우체부 초상화다. 자신의 귀를 자르는 등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고흐에게 일생을 통틀어 마지막까지 남아 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고흐의 친동생 테오와 우체부 조셉 룰랭이 바로 그들이다.

고흐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테오, 고흐와 테오가 주고받은 편지는 무려 668통이나 된다고 한다. 이 편지를 전해 준 사람이 바로 조셉 룰랭이다. 그는 또한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흐를 친구로 대해 준 사람이다. 그 유일한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그린 그림이 바로 '우체부 조셉 룰랭'이다.

두 사람의 우정이 낳은 이 그림은 현재 12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갖는다. 푸른 제복에 금관 장식, 포스테(POSTES)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집배원 모자, 콧수염에서 구레나룻으로 이어지는 풍성한 수염은 딱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의 모습이다. 고흐 그림이 아니더라도 우체국 집배원은 어느 나라에서나 맘씨 좋고, 믿음 가는 아저씨로 그려진다. 아마 인간의 직업 중 가장 평판이 좋은 직업일 것이다.

항상 좋은 배역으로 등장하는 집배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영화 제목으로 등장할 때는 이름을 바꾸는 등 진통을 앓았던 적이 있다. 제임스 M 케인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미국 영화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가 1982년 국내에서 상영될 때의 일이다.

애초 이 영화의 개봉 당시 제목은 '우편배달부는 벨을 두 번 울린다'였다. 그러나 집배원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이유로 강력히 항의해 결국 제목이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로 변경된 것이다. 이 영화는 우편배달부를 다룬 영화가 아닐 뿐더러 우편배달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작품 내용만을 보면 미국 공황기를 배경으로 한 패륜적인 불륜이다.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 어떤 경우든 힘든 노동 탓에 사람이 숨져서야 되겠는가.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0633/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